



# 진실의 힘

TRUTHFOUNDATION



안녕하십니까. 진실의 힘 이사장 박동운입니다. 길고 고되었던 2020 년을 보내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어느새 어린아이까지도 마스크를 써야 현관문을 나서는 것이 당연해졌고, 코로나 이전의 일상이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코로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살펴보게 했고, 동시에 가장 약한 고리가 어디인지 드러냈습니다. 전 세계적 재난 상황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는지는 곧 우리 사회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신속한 검사와 방역 조치 등 코로나 대응으로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거나 소외된 곳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방역의 최전선에서 애쓰는 의료진과 배달노동자들의 노동력에 기대어 여러 차례의 위기를 겨우 극복했고, 그중 과로로 사망하는 이들을 보았습니다. 콜센터와 같이 인구밀도 높은 일터의 노동자들은

여전히 감염에 취약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방역 조치로 일자리를 잃기도 합니다. 요양시설과 복지시설, 수용시설 등에서 여러 번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코호트 격리 조치가 취해지면, 미감염자도 감염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국가는 가장 약한 이들에게 각자도생을 강요합니다.

우리 조작간첩 피해자들이 진실을 밝히던 때를 떠올립니다. 영문도 모른 채 끌려가 고문을 당한 끝에 간첩이 되었습니다. 징역을 마친 뒤에는 진실을 밝혀야지 숨통이 트일 것 같아 만나는 사람마다 붙들고 사건을 알렸습니다. 각자도생의 시간,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연대하는 이들을 만났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던 어둠의 시간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손을 마주 잡은 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어둠 또한 연결의 힘으로 건너갈 것을 믿으며, 진실의 힘도 미약한 손을 보탬니다.

진실의 힘은 코로나가 한국 사회에 던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해석해야 하는지 다양한 각도로 바라보고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뜻을 함께하는 이들과 모여 이를 의미 있는 결과로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위원회가 활동을 재개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진실의 힘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활동한 1기 진화위가 당시에는 인권 침해적 시각에서 바라보지 못했던 형제복지원과 같은 강제수용시설 문제를 비롯하여 진실규명이 필요한 사건을 발굴하고, 진실규명 신청을 하는 피해자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올해 초 <다시는> 김미숙, 이용관 씨의 단식 29 일만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이 국회를 겨우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기업 책임도 처벌 수준도 낮은 ‘누더기’ 법안입니다. 진실의 힘은 일터에서 가족을 잃은 분들이 이런 고통이 반복되지 않길 바라며 만든 <다시는>께 인권상을 드렸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사회는 개인을 길 위에 서게 합니다. 그래서 다짐합니다. 잡은 손을 놓지 않겠다고, 우리가 가장 힘들었던 때, 우리의 손을 잡은 연결의 힘을 믿으며.

예년 같으면 이런 힘든 때야말로 서로 얼굴을 보고 웃고 격려하는 자리를 만들었을 터입니다. 서운한 감이 없지 않으나 꼭 참으시고 신년에는 더욱더 힘찬 한 해가 되시길 빌겠습니다.

## [칼럼] 하루 일곱 명의 '퇴근'을 위한 싸움



이한솔,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이사 · 고 이한빛 피디 동생 |  
야속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내고 행동했다. 그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기업'을 빼버리며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바꾸었다. 법안의 내용은 전면적으로 후퇴되었다. 오랜 시간 멈춰있던 논의는 1 주일 만에 물 흐르듯이 진행되었다. 단식 농성을 벌이는 유가족이라고 해서 일반 시민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주장을 하지 않는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일상에서 누구나 경험했을 비극이자 좌절의 이야기를 꺼냈다. 그렇게 유가족의 단식은 시민들의 큰 공감대를 얻으며 국회를 압박했다. 하지만 국회의사당 울타리 안쪽 세계의 벽은 지나치게 공고했다.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 일한다고 대기업에 다니는 노동자보다 생명의 가치가 더 낮을 리가 없다. 공무원이 본인에게 주어진 감독의 역할을 온전히만 수행했어도 수많은 비극을 막을 수 있었다. 한국과 같은 피라미드형 조직 시스템에서 최고 결정권자에게 안전의 책임을 물었을 때 구성원 전체가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챙길 것이라는 사실을, 학교에서든 군대에서든 회사에서든 생애주기 내내 익숙하게 경험했다. 문제를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일으키는 기업을 방치하면 열 번이라도 사건이 재발할 것이 자명하다. 기업이 사건 조사를 방해하고 은폐한다면,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못한다.

10 만 명의 서명을 받았던 최초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는 상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안전한 일터의 기본 조건이 담겨 있었다.

떠나보낸 자식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유가족이 단식을 하면서까지 설득해야 하는 특별한 권리가 아니었다. 그런데도 정부와 국회는 지난 몇 달간 꿈쩍도 하지 않다가 유가족이 극단적인 상황에 부닥치자 겨우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마저도 후퇴하고 후퇴했다.



연합뉴스

왼쪽에서 두 번째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

퇴근길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이다. 따뜻한 집이 기다리고 있는 퇴근길은 지친 몸을 녹일 수도 있고, 소중한 사람을 다시 만날 수도 있는 설레는 길이다. 하지만 하루에 일곱 명이 퇴근을 못 한 채 우리 곁을 떠나고 있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 그 일곱 명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다. 하지만 보통의 작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란 너무나 어려웠다. 정치는 안전과 기업의 이윤 사이에서 기업의 손을 들었다. 법사위의 논의 과정에서는 내용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온 국회의원이 기업의 이해관계만 늘어놓는 일도 허다했다.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안전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조치를 누가 결정하지 않았고 어떻게 무산되었는지. 후퇴한 법안이 언젠가는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끈질기게 가야 한다. 항상 절박하게만 살아갈 수는 없으니 이제 시작했다 생각하고 조금하지 않게 나아갈 방향을 준비해야 한다.

다만 다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가족 투쟁'이라는 방식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는 투쟁이 끝나도 돌아오지 않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한국 사회는 죽음의 의미를 무겁게 부여하기에, 유가족의 투쟁은 시대마다

운동을 확산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해왔다. 언론이든 정치든 누구도 약자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지만, 유가족이라도 나서면 조금이라도 변화를 만들어 내다보니 불가피한 선택이 되는 것이다. 유가족 스스로도 자신의 가족에게 벌어진 비극의 상처가 사무치게 남아있기에,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앞장서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무거운 사회적 사명감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오늘의 방식은 개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죽음을 짊어지고 앞으로만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일지 긴 호흡으로 집중하기 어렵다. 때로는 투쟁 과정에서 죽음이 자극적으로 전시되며 새로운 상처가 생기기도 한다. 긴 시간 동안 서로 간의 상처와 갈등으로 인해 흩어지고 멀어지는 투쟁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투쟁의 승리와 법안의 제정도 매우 중요하지만, 추모의 시간을 천천히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당장 시민사회가 두터워져서 ‘죽음’ 없이도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보니, 당분간은 유가족들이 여러 공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다. 투쟁의 현장에서 활동가든 유가족이든 상처를 덜 받고, 떠난 가족에게도 떳떳할 수 있고, 떠난 가족을 다시 만나는 순간까지 힘을 잃지 않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법안 제정과 조속한 단식 마무리 사이 어딘가에 내 마음이 있었기에, 아버지와 김미숙 어머니, 아직은 농담도 잘하실 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라도 되는 성과를 보시고 병원에 가실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1월 8일 단식농성이 끝난 이후에도 지금의 안도한 마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 [칼럼] 가난을 선별하지 말라

소준철 도시사회학 연구자 · 『가난의 문법』 저자



시사인

가난의 사각지대는 "경쟁에서 이탈한 이들이 머무는 각자도생의 영역"이다. 얼마 전 사회에 제출한 『가난의 문법』은 다음의 문장으로 시작한다. “한국사회에서 가난의 모습은 늘 변해왔다.” 반면에 가난이라는 현상에서 변하지 않은 것도 있다. 바로 국가의 자세다. 해방 후부터 지금까지 국가는 가난은 개인의 탓이며, 국가가 제공하는 ‘기회’를 통해 정상적인 국민으로 변신하라고 요구했다. 대개는 국가가 제시한 경쟁을 위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일한 만큼 돈을 받아 가게 했다. 사람들은 이렇게 취로사업에 참여했다. 사정이 극심한 경우에만 최저의 생계비를 제공했다. 우리는 이런 프로그램을 두고 흔히 ‘선별적 복지’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는 물어야 한다. 가난은 ‘개인의 탓’이기만 한가? 국가가 제공하는 ‘기회’는 우리에게 능력을 줄까? 만약 정신과 신체가 질병의 경계에 놓여 있거나 노화로 일을 할 수 없는 사정이라면 어떻게 할까? 국가의 ‘선별’ 프로그램은 가난에도 ‘정상’적인 가난이 있다고 여기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든다.

한국사회에서 가난은 줄지 않았다. 여전히 모든 세대에서 불평등이 문제다. 노인을 두고 가난의 상징이라기보다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큰 대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노인의 가난은 지금껏 여러 책에서 다루졌다. 구술생애사작가 최현숙의 『천당하고 지옥이 그만큼 칭하가 날라나?』 (2013), 『막다른 골목이다 싶으면 다시 가느다란 길이 나왔어』 (2014),

『할배의 탄생』(2016), 출판 후 불미스러운 일을 일으켰던 조 모의 『임계 장이야기』(2020), 기자 이문영의 『노랑의 미로』(2020), 필자의 『가난의 문법』(2020)까지. 여기서 소개한 책들은 국가의 미진한 책임과 개인의 억척스러운 노력, 끝나지 않는 노력을 드러냈다. 앞의 책을 읽다 보면, ‘선별적 복지’는 사회의 빠른 변화에 비해 대처의 속도가 느리다는 생각이 든다. 국가의 ‘선별적 복지’란, 국가가 책정한 기준에 의해 수혜자를 가누게 되는데, 이 과정에 소비되는 시간과 그 능력의 한계로 가난에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한다. 바로 이 지점에서 사각지대가 끊임없이 만들어진다.

지금-여기 노인의 가난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노인들의 특징을 먼저 살펴보자. 지금의 노인들은 양극화가 가장 심한 세대다. 또 생활과 사유와 습관에 있어 전통과 근대를 동시에 살고 있으며, 일부는 지체된 채 살고 있다. 경제적인 면에서는 사회적 합의로 생산인구(만 15세-64세)에서 벗어나 경제활동을 면해야 한다고 여겨진 대상이다. 그리고 신체적 노화에 따라 소수자에 속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 특히, 가난한 노인들은 사회적 합의와 상관없이 일해야 하며, 노화와 질병으로 소수자로 지낼 수도 있고, 전통과 근대가 뒤엉킨 빠른 변화를 견뎌야 하는 존재들이다. 게다가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거나 사회복지 자원을 이용할 때 경쟁을 피할 수 없는 처지로 살아간다. 이런 처지에서 벗어나려 국가에 도움을 요청할 때면, 노인들은 자신이 지닌 ‘가난의 자격’을 인정받아야 한다. 수입이 얼마 이하인지, 가족이 없는지, 건강이 얼마나 나쁜지 등과 같은 자격 조건 말이다. 그렇지만 ‘선별’된 이들만이 일을 하거나, 각종 급여를 받는다. 사각지대란 전달체계가 빈 지점이라기보다 경쟁에서 이탈한 이들이 머무는 각자도생의 영역으로 볼 필요가 있다.



경향신문

경력과 기술이 없으며 돈이 필요한 노인들은 접근성이 가장 높은 재활용품을 줍는 일을 택한다.

왜냐면 국가는 ‘사회’를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눠 관리하는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국가는 복지에 있어, 정상적인 모델을 상정했고, 비공식적인 것을 정상화하려는 방식을 택했다. 이 비공식적인 것의 정상화란 국가의 역할을 세분화했고, 자원을 분배해 산업이 그 일을 위탁해 수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난다. 오래된 문제 하나를 먼저 살펴보자. 지금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1982년, 국가는 “직업보도훈련을 실시”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하게 하는 목적을 지닌 부랑인 수용시설을 대폭 확대했다. 모두가 잘 아는 그 ‘형제복지원’이 이 정부가 제시했던 우수한 사례였다. 결과는 알려진 대로, 시설은 수용자를 감금해 사적 이익을 취득했고, 국가는 시설을 동원했고 이로 인한 문제에 대해서는 묵인했다. 현재는 모두 해결되었을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걸 모두 알고 있다. 국가의 선별적이며 개인을 개조하겠다는 방식이란, 그 경제적 ‘합리성’을 통해 정책과 산업을 유지시키는 걸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게 아닌지 의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선례를 딛고 우리는 국가가 하층민을 보호하는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끊임없이 되물어야 한다. 가난한 여성노인들은 대표적인 대상이다. 가난한 여성들의 처지는 대개 ‘비정상’적으로 여겨진다. 국가에서 제시하는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현모양처인 가정주부로 남편과 자녀 그리고 손자녀에게 모성을 수행해야 한다는 정상-모델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최근 여성노인이 손자녀를 챙기는 ‘돌봄노동’은 중산층 이상에게서 이뤄지는 ‘정상적’ 모델로 여겨지는 경향 역시 존재한다.) 여기서 벗어난 이들, 즉, 젊어서 사정에 따라 일을 했거나 나이 들어 일하는 이들은 그 자체로 ‘비정상적’인 존재들이다. 여성의 정상적인 생애경로라 ‘여겨졌던’ ‘출생-(최소한의) 진학-졸업-결혼-자녀 독립-사망’을 벗어났기 때문이다. 이들에게는 생존을 위한 마당한 (일)자리가 없다. 자연스럽게 가난한 여성들에게 경력과 기술의 숙련이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일이란, 이 여성노인들이 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일이다.

가난한 사람의 처지란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복잡한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된다. 특히 국가와 사회가 (헌법에서 천명한대로) 개인을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때 드러내는 지점이기도 하다. 특히 ‘선별’을 중심으로 ‘정상화’하겠다는 국가의 독점적인 노력은 그들의 목표와 결과를 다르게 만든다고 여겨진다. ‘비정상의 정상화’는 실상 ‘(또 다른) 정상의 비정상화’로 이어질 가능성 역시 있다. (형제복지원에서, 재활용품 수집 노인에서 우리는 그 흔적을 찾아낼 수 있다.) 우리는 “정부의 독점을 날마다 조금씩 탈취해야만 한다.”는 말을 고민해야 한다. 이 ‘탈취’란 국가를 무력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가 행정의 효율을 위해 사람을 선별하기보다, 인민이 ‘보통 사람’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최소의 조건을 갖추게끔 국가의 역할을 관리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여겨진다.



연합뉴스

왼쪽에서 두 번째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

퇴근길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시간이다. 따뜻한 집이 기다리고 있는 퇴근길은 지친 몸을 녹일 수도 있고, 소중한 사람을 다시 만날 수도 있는 설레는 길이다. 하지만 하루에 일곱 명이 퇴근을 못 한 채 우리 곁을 떠나고 있었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통해 그 일곱 명의 생명을 지키고자 했다. 하지만 보통의 작은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기란 너무나 어려웠다. 정치는 안전과 기업의 이윤 사이에서 기업의 손을 들었다. 법사위의 논의 과정에서는 내용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않고 온 국회의원이 기업의 이해관계만 늘어놓는 일도 허다했다.

똑똑히 기억해야 한다. 안전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할 조치를 누가 결정하지 않았고 어떻게 무산되었는지. 후퇴한 법안이 언젠가는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긴 호흡으로 끈질기게 가야 한다. 항상 절박하게만 살아갈 수는 없으니 이제 시작했다 생각하고 조급하지 않게 나아갈 방향을 준비해야 한다.

다만 다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유가족 투쟁'이라는 방식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들에게는 투쟁이 끝나도 돌아오지 않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한국 사회는 죽음의 의미를 무겁게 부여하기에, 유가족의 투쟁은 시대마다 운동을 확산시키는 기폭제 역할을 해왔다. 언론이든 정치든 누구도 약자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지만, 유가족이라도 나서면 조금이라도 변화를 만들어 내다보니 불가피한 선택이 되는 것이다. 유가족 스스로도 자신의 가

죽에게 벌어진 비극의 상처가 사무치게 남아있기에,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앞장서는 역할을 맡는다. 하지만 무거운 사회적 사명감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온전히 감당해야 하는 오늘의 방식은 개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죽음을 짊어지고 앞으로만 나아가야 하는 사람들은 죽음의 의미가 무엇일지 긴 호흡으로 집중하기 어렵다. 때로는 투쟁 과정에서 죽음이 자극적으로 전시되며 새로운 상처가 생기기도 한다. 긴 시간 동안 서로 간의 상처와 갈등으로 인해 흩어지고 멀어지는 투쟁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다. 투쟁의 승리와 법안의 제정도 매우 중요하지만, 추모의 시간을 천천히 가질 수 있도록 역할을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당장 시민사회가 두터워져서 ‘죽음’ 없이도 사회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 보니, 당분간은 유가족들이 여러 공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이다. 투쟁의 현장에서 활동가든 유가족이든 상처를 덜 받고, 떠난 가족에게도 떳떳할 수 있고, 떠난 가족을 다시 만나는 순간까지 힘을 잃지 않으면 좋겠다. 제대로 된 법안 제정과 조속한 단식 마무리 사이 어딘가에 내 마음이 있었기에, 아버지와 김미숙 어머니, 아직은 농담도 잘하실 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통과라도 되는 성과를 보시고 병원에 가실 수 있어서 참 다행이다. 1월 8일 단식농성이 끝난 이후에도 지금의 안도한 마음이 계속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

## [칼럼] 시설폐쇄 운동, 시혜가 아닌 ‘권리’다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 |

### 수용시설은 감금과 격리의 역사

시설은 1950년대 국가가 경제발전에도움이 되지 않는 존재로 규정한 이들을 사회에서 격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만들어졌다. 국가는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시설에 많은 재정적 지원을 투여하면서 규모가 점차 확대되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시설은 사회복지제도가 변화하는 시점에 따라 ‘전쟁고아 수용소’에서 대규모 ‘장애인 거주 시설’로, 또 장애인의 ‘탈시설을 지원하는 주택 운영자’로 빠르게 탈바꿈해왔다. 왜냐하면 국가가 ‘정상적인’ 인구에서 벗어난 이들을 사회로부터 분리, 배제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시설의 본질은 바뀌지 않은 채 복지정책에 따라 교묘하게 형태를 달리하며 국가와 ‘이익’을 주고받기 때문이다. 분명한 것은 시설을 공고하게 유지하고 있는 국가의 기조는 강제수용과 감금의 역사를 청산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비정상'으로 분류된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키기 위해 수용시설은 여전히 유효한 장치로서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역사 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장애여성공감

"더이상 시설로 돌아갈 수 없다!"

따라서 수용시설이 물리적 장소로 존재하는 구조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시설 안과 밖에서 관계와 자원에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시설화는 지배 권력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보호, 관리’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사회와 분리하여 권리와 자원을 차단하며 ‘불능화, 무력화’된 존재로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권을 제한하여 주체성을 상실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sup>1</sup> 2017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시설 내 거주하는 공간에 3명에서 5명이 거주하고 있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52%, 6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비율도 36%가 넘었다. 집단적으로 수용되어 있는 시설 안에서 개인의 시간과 공간이 주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며 일상 전체가 드러나는 삶이 시설이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통제와 감시가 유용한 구조인 것이다. 또한 이들이 매일 약을 먹는 비율이 61%로 나타나고 있으며 거주인 중 상당수가 만성 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시설에서는 거주인의 ‘건강관리’를 이유로 ‘통제’를 정당화하지만, 실제로 평소 먹는 약을 의사로부터 수령하지 않았거나 무슨 약인지도 모른 채 먹고 있는 경우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sup>2</sup> 대다수의 거주인이 약을 복용하고 있는 것은 개별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관심을 두고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약물로 감정을 조절하거나 예방 차원으로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처럼 국가 주도하에

시설화되어 온 폭력적인 역사를 끌어내기 위해 감염병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시설의 존재가 보호가 아닌 감금과 격리의 역사 그 자체임을 명백하게 드러내야 한다.

### ‘코호트 격리’는 ‘생명을 포기’하는 시설사회의 발현이다

올해 2월, 청도대남병원에서 코로나 19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그리고 그 이후 정신병원, 요양시설, 장애인거주시설 등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국가는 코로나 19에 대한 방역대책으로 ‘예방적 코호트 격리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의미 그대로 국가가 집단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 선제적으로 격리하는 예방대책이다. 「사회복지시설 대응 지침」에 명시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리두기 2단계의 경우 시설의 ‘외출, 외박, 대면, 면회’가 금지되고 2.5단계의 경우 ‘외부 출입 인원 통제’가 추가된다. 그러나 시설 거주인의 외출을 가로막는 것은 예방적 코호트 격리조치 때문이 아니며(이들을 막는 것은 거리두기 방역지침만은 아니다.), 그동안 시설의 문이 활짝 열려있어도 이들은 시설 밖으로 나올 수 없었다.

시설 밖으로 나오려면 시설의 허락과 협조가 있어야 하는데 그마저도 시설의 일정이 최우선 시 되기 때문에 개인이 나오고 싶을 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따라서 시설 안에서 거의 평생을 살아온 이들에게 ‘코호트 격리’는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의 삶을 가르지 않는다. 국가가 이미 이들의 삶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 관계와 정보들로부터 단절되어 왔는데 무엇을 더 ‘격리’하겠다는 것인가.



장애여성공감

1월 15일에 열린 신아원 정문 앞 사다리 사수 투쟁.

## 시설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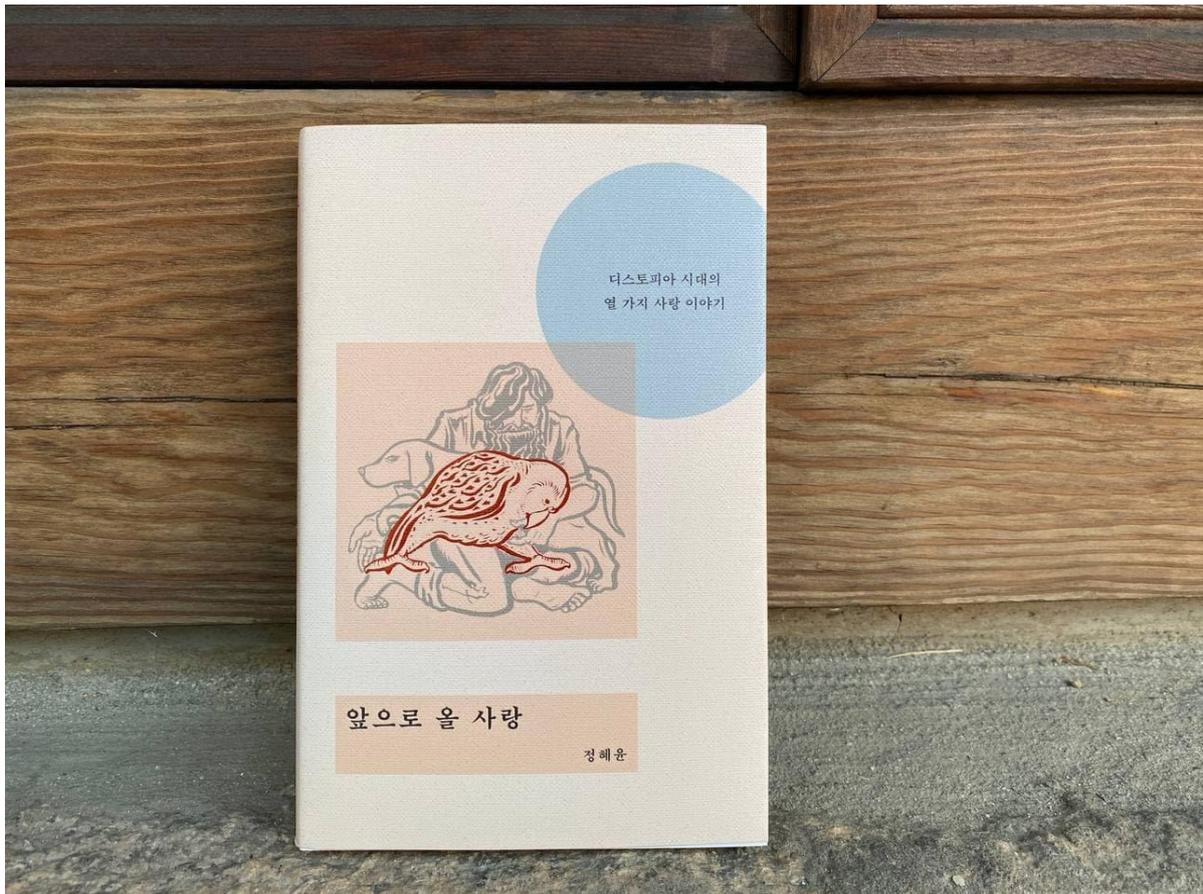
코로나 19가 발생하고 나서 시설을 나오지 못하는 이유, 건물에서 방 안으로 갇힌 이유를 질문했을 때 ‘장애인이 감염병에 취약해서’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들었다. 그런데 단지 ‘장애인’이어서 감염병에 취약한 것이 아니라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협소한 공간에서 집단 감금하는 시설의 구조가 감염병에 취약한 것이다. 예견된 일이었지만, 지난 12월 말 서울시 송파구의 장애인 거주시설 신아원에서 70여 명의 거주인과 종사자가 코로나 19에 감염되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시설 내에서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에 서울시는 ‘코호트 격리’되어 확진자와 비확진자가 시설에 수용되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과 더불어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하여 ‘긴급 탈시설 이행 촉구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코호트 격리 원칙을 폐기하고 긴급 분산조치 실행 지침을 마련할 것, ‘긴급 분산조치’ 기간에 장애인거주시설에 집합금지 명령 수준의 지침을 적용하고 거주인이 다시 시설로 돌아가지 않도록 긴급 탈시설 방안 마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sup>3</sup>

‘코호트 격리’는 방역대책이 아니다. ‘코호트 격리’는 시설을 유지하고자 하는 국가의 의도와 맥락을 같이 하는 방침이다. 코호트 격리로 장애인 거주시설에 감금되었던 국가 사회복지정책이라는 이름의 폭력에 억압받았던 이들의 삶이 처절하게 드러나고 있다. 감금되었던 사람들에게 추가로 코호트 격리 조치를 하는 것은 K-방역이 아니라 국가의 폭력이다. K-방역 자부심이 코로나 19가 시작된 시기에 효과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미 시설이 감염병이 확산될 위험도가 높은, 안전하지 않은 구조임을 충분히 경험했다. 더 이상 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가는 시설을 즉각 폐쇄하고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주요한 방역지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 [에세이] ‘계속 살아라’라는 말은 ‘매순간 있는 힘껏 사랑하라’라는 말과 같다

정혜윤 PD |

디스토피아 시대의 열 가지 사랑 이야기 <앞으로 올 사랑>



안녕하세요. 저는 <앞으로 올 사랑>을 지난 12월에 출간한 정혜윤이라고 해요. 책을 내고도 제 책에 대해서 뭐라도 한 줄 써보는 것은 처음이네요. 제 책은 지난 8월의 늦은 여름밤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에 따라 진행되었어요. 그러고 나서 석 달 만에 집필을 마친 책이네요. 퇴근하고 나서 썼으니까 밤마다 흘린 듯이 빠르게 쓴 책인 셈이에요. 무엇이 저를 흘리게 했을까요? 물론, 코로나와 기후위기 시대를 사는 절박함이었어요. 당시 저는 코로나에 관한 취재를 하던 중이었고 ‘장의 매뉴얼’이란 것이 존재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 매뉴얼을 보고 저는 슬픔을 느꼈어요. 제가 속해있는 언론은 그 당시에 지금처럼 코로나 환자의 숫자를 발표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람은 하나의 숫자가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죠. 우리의 삶에는 아주 수많은 이야기가 숨겨져 있지요? 저는 우리 시대에는 어떤 이야기가 필요할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산다는 것의 의미, 죽지 않고 계속 살고 싶어 한다는 것의 의미, 여전히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의 의미를 저 스스로 대

답하고 싶어졌어요. 우리에게는 그저 생존한다, 안 죽었으니 산다. 이상의 원가가 더 필요하지요? 그즈음 저는 흑사병 시대를 배경으로 보카치오가 쓴 <데카메론>을 읽었어요. 데카메론은 대규모 이야기 모음집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데카메론은 죽음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생기 넘치는 책이었어요. 주로 사랑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사랑이야기는 현실에 있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올 사랑’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아직은 거의 보이지 않는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곧 인류 역사에 나타날 사랑요. 저는 이 글의 미래 지향성에 마음이 끌렸어요. 데카메론의 이야기는 이렇게 진행돼요.

첫째 날 자신이 좋아하는 이야기, 둘째 날 달콤한 결실을 맺는 이야기, 셋째 날 원하는 것을 얻는 이야기, 넷째 날 불행한 사랑 이야기, 다섯째 날 행복한 사랑 이야기, 그리고 통찰력 있는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 아주 커다란 모험을 떠난 이야기...

이 열흘 밤의 주제를 보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저 자신을 발견했어요. 나는 어떤 이야기를 좋아하지? 어떤 것을 기쁨으로 알고 살지? 인생에 무엇을 얻고 싶어 하지? 무엇을 행복이라고 혹은 불행이라고 생각하지? 무엇을 사랑으로 간주하지? 내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사랑은 무엇이지?

그러니까 저는 코로나와 기후위기를 배경으로 이 질문들에 답을 한 책을 썼다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일어나는 일을 외면하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코로나와 기후위기는 마치 하늘이 우리의 배경인 것처럼 우리의 현실입니다. 책을 쓰는 마음은 초조했어요. 코로나와 기후위기에도 맞고 열 가지 주제에도 맞고 미래와 우리가 살아가는 데 도움도 되는 이야기를 내가 써볼 수 있을까? 너무 긴장되고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어요. 사실 저도 이런 책은 처음 써보는 셈이에요. 자유롭게 주제를 정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주제를 부여받았으니 꼭 어떤 도전에 응하는 기분마저 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저는 제가 이 책을 쓴 것을 어느 정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 자신을 미래를 위해 한번 던져본 것 같은 기분도 듭니다. 저는 제가 이 주제들을 가지고 써름한 시간들을 단 일 분도 후회하지 않는답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행동이 미래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할 때 더 행복합니다. 이 글은 이야기와 삶을 엮는 방식으로 쓰였습니다. 우선 저는 이야기의 힘을 믿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빛이 난다면, 그 이야기는 세상을 새롭게 보게 하고 장차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감을 잡게 도와줘요. 늘 새로운 이야기가 필요한 이유는 새로운 이야기가 없다면 그냥 지금 이대로 사는 것 외에 다른 어떤 삶이 가능할지 잘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가장 공들여 쓴 장은 셋째 날 원하는 것을 얻는 이야기, 넷째 날 불행한 사랑 이야기, 다섯째 날 행복한 사랑 이야기, 아홉째 날 자신이 좋아하는 이야기 등입니다. 이 이야기 안에는 우리가 지금 느끼는 지구파괴에 대한 양심의 가책, 찜찜함과 떳떳함, 후회 없는 삶, 사랑하는 것을 지키는 이야기, 백신 만능주의에 대한 경계, 양극화 등 장차 나타날 우려가 있는 더 차가운 야

만적 세상, 순응과 저항, 주체적인 삶, 살아있는 말, 사랑과 부동산의 마법, 공장식 축산과 인간 본성을 비롯한 많은 중요한 당대적 주제들이 펼쳐집니다. 각 시대는 자기 시대만의 이야기를 필요로 합니다.

제 작은 바람에 불과할 수 있지만, 이 책을 읽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앞에서 소개한 열 가지 주제에 따라 각자 생각을 정리하거나 글을 한편씩 써보는 거예요. 글을 쓸 때 추구하는 것은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게다가 종이는 신비로운 공간이에요. 종이에 적어놓는 순간 우리의 오류, 실수, 후회, 희망은 또 하나의 시간을 갖게 돼요. 미래라는 시간이예요. 그 적어놓은 이야기가 좋은 것이라면, 진실된 마음이 움직여서 쓴 것이라면, 우리는 그 안에 갇들어 살게 돼요. 이야기의 일부분이 되어서 살아가게 돼요. 이야기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기도 해요. (피난처는 아홉 번째 날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야기는 우리를 혼자 있게 하지 않으니까요. 늘 우리와 같이 있으니까요. 저는 제 생각대로 썼지만 다른 분들은 또 어떤 글을 쓰게 될지 참을 수 없이 궁금합니다. 그것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세상에 대한 이해이자 자신의 삶에 대한 탐구일 테니까요.

저는 이 글을 쓰는 동안 기다릴 수 있게 되었어요. 우리의 삶이 최종적인 의미를 갖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일까요. 그 일을 위해 저 자신의 삶의 시간과 에너지를 쓸 것을 조금 더 믿게 되었어요. 체념하거나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겠지요? 우리에게 지금 더 힘이 필요하지요? 힘의 비밀은 연결입니다. 이렇게 분리가 심할 때는 더욱 세상과 어떻게 연결되어야 할지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잘 연결될 때 힘을 더 낼 수 있어요. 더 열정적으로 살 수 있어요. 그 연결은 이제 인간과 인간의 연결을 넘어서서 인간과 자연과의 연결까지 확장되어야만 해요. 더 크고 좋은 연결에 마음을 열 때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이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지요? 우리가 힘을 내는 방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우리가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사실,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사랑하고 살 것인가? 보다 더 오래된 질문이 있을까요? 거기에 수많은 창의적인 대답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삶은 여전히 축복이고 시간은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책을 읽는 밤도요.

## [칼럼] 제자리에 멈춘 동수 씨의 취미생활

김형숙, 세월호 생존자 김동수님 아내 |



김형숙

고등학교 때 마라톤 선수였던 동수 씨. 화물 기사 일을 할 때 틈만 나면 전국의 마라톤 코스를 뛰었다.

동수 씨의 취미는 영화 보는 것이다. 극장에 새로운 영화가 상영되면 무조건 상영 첫날 봐야 할 정도로 영화광이다. 영화에 대한 내용도 잘 기억한다. 나는 좋아하는 장르가 아니면 보지를 않는데 지금은 동수 씨 혼자 영화를 보러 갈 수 없으니 같이 따라가서 봐야 한다. 나는 액션이나 무협 장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영화를 보다가도 정말 말 그대로 잠을 잔다. 특히 시리즈로 나오는 것들은 이해를 아예 못 하니 정말 지루하다. 동수 씨는 집에서도 시간만 나면 영화를 보는데 재탕도 모자라 삼탕까지 해서 보고 또 본다. 그래서 동수 씨가 장거리 버스를 타거나 비행기를 탈 때는 영화를 다운받아서 보게 해준다. 그래야 다른 것에 신경을 안 쓰고 예민해지지 않는다.

또 다른 취미는 마라톤이다. 동수 씨는 고등학교 때부터 선수로 활약했고 졸업 후에도 모교에서 후배들 가르치는 코치 생활도 여러 해 했다. 결혼한 후에는 마라톤 동호회에 가입해서 열심히 운동하고 생활체육 코치와 심판, 이사도 겸임할 정도로 왕성한 활동을 했다. 화물 기사 일을 할 때도 틈만 나면 전국에 있는 마라톤 코스를 달리곤 했다. 오죽하면 세월호에 빠진 화물차를 건져보니 온통 동수 씨 운동복과 운동화뿐이었겠는가.

지금 동수 씨는 달리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가 나고 얼마 동안은 미친 듯이 달리기만 했다. 한여름에 겨울 패딩을 입고 도로 한복판에서 20km 이상 달렸다. 어떤 날은 약속 시간이 다 되었는데도 약속 장소로 도착하지 않아서 전화했더니 산 쪽으로 올라가 버려서 차로 데리러 간 날도 있다. 지금 생각하면 온전한 정신으로 달린 것 같지 않다. 혼자만의 생각으로 어떤 계획도 없이 달리기만 했을 것 같다.

3년 전 사려니숲길에 처음 근무했을 때는 매일 숲길을 달리고 나무와 풀들을 보러 다니고 고사리 꺾는 철에는 새벽부터 나가서 고사리를 엄청 꺾어 오곤 했다. 꺾어 온 고사리는 지인들에게 모두 나눠준다. 한동안은 약초에 관심이 많아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몸에 좋다는 것들을 캐어 약술을 많이 담갔다. 한 달에 담그는 술값만 해도 어마무시하게 들어갔다.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았다. 본인이 복용하는 것도 아니면서 주변에 잠 못 드는 사람들이나 아픈 사람들에게 효과가 좋다면 나눠주는 것이다. 가지러 오는 사람들이 미안한 마음에 담글 술을 직접 가져오기도 했다. 지금 동수 씨는 더 이상 약술을 담그지 않는다. 사람들이 또 언제 담느냐고 물어보면 알았다고는 하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한다.

언제부터인가 식물 가꾸는데 관심을 많이 가졌다. 돌들을 주워오고 썩은 나무들을 구해다가 거기에 다육식물들을 심는다. 쓰지 않는 화분들을 주워서 나무들을 심기도 한다. 식당에 가서도 빈 화분이 있으면 얻어 와서 나무들을 심는다. 겨울이면 미니 하우스를 만들어 화분들을 안에다가 놓기도 했다. 잘 가꾼 식물과 다육식물들은 또 지인들에게 나눠준다. 텃밭에도 채소들을 종류대로 심었다. 매일 물을 주고 대를 세워주고 풀을 뽑고 가꾸느라 여름에 퇴근하고 캄캄해질 때까지 집 안으로 들어오지를 않았다. 지금 동수 씨는 식물도 다육식물도 가꾸지 않는다. 주인을 잃은 텃밭에는 잡초가 무성하고 얻어온 농기구들만 자리를 잡고 있다.



김형숙

동수 씨에게도 다육식물 심고 가꾸기에 열정적이던 때가 있었다.

2년 전 어느 날 숲길에 들어오다가 어린 들개 한 마리가 숲을 돌아다니고 있었다. 당시에 지인들이 트라우마에 반려동물을 키워보는 것이 좋다고 권하는 때라 집에 데리고 가서 키우겠다고 했다. 나는 마음의 준비도 안 되고 갈등이 생겼지만 동수 씨가 그러고 싶다 하니 동의를 했다. 사려니숲길에서 데려와서 '려니'라고 이름도 지어줬다. 원래 아이들과 동물들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정이 많은지라 엄청 예뻐하고 잘 돌봐줬다. 그리고 1년 후 한 마리를 또 데려다가 키우겠다고 했다. 숲에서 돌아다니면 유기견으로 신고 들어가서 잡아가 버리고 려니도 혼자 외로우니까 같이 키우자는 것이다. 갑자기 계획에 없던 일이라 일주일을 고민하고 돌이켜 잘 지내기에 월든삼거리에서 데려왔으니 '월든'이라고 이름 짓고 입양을 했다. 본인이 산

책시키면서 운동도 하겠다고 했다.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려니, 월든이가 보고 싶어서 퇴원을 빨리해야겠다고 한 남자이다.

하지만 지금 동수 씨는 려니와 월든이를 산책시키지도 않고 돌보지도 않는다. 하물며 얼마 전에는 다른 데로 입양을 보내자고도 했다. 월든이가 자주 탈출을 해서 옆집과 조금 갈등이 생겼을 때는 누가 트라우마에 반려동물 키우는 것이 좋냐고 했냐며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쌓인다고 다시 숲길에 가서 풀어주겠다고 하는 것이다. 본인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두 녀석 신경 쓰는 것이 힘들다는 것이다. 그래도 지금은 그날 그랬던 것이 미안한지 말 못하는 동물이 무슨 죄가 있냐며 안쓰러워한다. 그리고 녀석들이 워낙 동수 씨에게 애교를 부리니까 입양 얘기는 더 이상 하지 않는다. 그렇더라도 나와 딸들은 또 언제 입양 얘기를 꺼낼까봐 조심스러워 산책도 우리끼리 시키고 마당에 똥들도 우리가 치운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라고 하는데 내 남편의 취미도 수시로 움직이고 있다. 문제는 아직은 다음 취미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처음 동수 씨의 트라우마 증세는 분노였다. 왜 나는 죄를 짓지 않았는데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하느냐는 울부짖음에서 시작했다. 치유의 골든타임을 놓치면서 또 다른 분노의 방법으로 자해를 했다. 심리상담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병원에서는 점점 독한 우울증약을 처방해줬다. 지금은 원내 처방 약만 먹는다. 원내 처방 약이란 마약 성분의 약들일 것이다. 온몸을 약으로 누르다 보니 분노 자체는 사라졌지만 무기력이라는 새로운 병명을 안겨 줬다. 분노로 표출을 안 하니 나로서는 덜 조바심을 내지 않아서 좋지만 정작 본인은 얼마나 답답할까. 그렇게 중독처럼 달리던 마라톤을 안 하게 되는 것도 약들이 동수 씨 근육마저도 죽이기 때문에 힘이 받쳐 주지 못해서다.

매사에 자신 있었던 우리 집 가장 동수 씨의 모습은 일상생활에서도 나타난다. 중간에 목공을 배우겠다고 이런저런 공구들을 사놓고 딸의 침대를 직접 만들어 주겠다고 하며 합판까지 사놓고는 손을 놓고 있다. 양말목 공예도 한때는 하루 열 개도 만들었는데 요즘은 겨우 옆을 껴매는 것만 한다. 아무것에도 관심이 없고 흥미도 없어 보인다. 가끔 지인들 만나 얘기를 하거나 식사를 할 때도 너무 말이 없고 반응이 없으니 내가 미안하고 무안할 때도 있다. 그나마 세월호 이야기 나올 때만 입을 연다. 무기력증이라는 무서운 벽 앞에서조차 세월호 하나만은 놓지 못하는 그 남자의 모습이 몹시도 아프다. 오히려 예전에 무언가에 미쳐있을 때가 더 좋았고 그리워진다. 그때는 동수 씨가 살아있다고 느껴지기도 했는데 지금은 정말 살아 움직이는 송장 같다. 무엇을 의논해도 본인은 잘 모르겠으니 나보고 다 알아서 하라고 한다. 지난 연휴 사흘 동안은 집 밖은 고사하고 안방에서도 나오지를 않는다. 오죽하면 딸이 셀프 자가 격리를 하는 아빠라고 했겠는가.



김형숙

2년 전인 2019년에는 마라톤 41.6km을 완주했다.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으며 동호회원 사람들과 함께 한 덕분이었다.

우리가 근무하는 사려니숲길은 며칠째 폭설로 탐방소에 올라가지 못해 양쪽 입구에서 번갈아 가며 일한다. 근무지에 정착을 못 하니 마음도 오락가락하는 것 같다. 내린 눈이 다 녹아 우리의 원래 근무지인 물чат오름 탐방소에 정착하는 것처럼, 동수 씨의 좋은 취미도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본인 건강에도 좋고 이웃과 사회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면 더욱더 좋고 말이다. 물론 다른 것으로 또 움직여도 상관은 없다. 세상은 넓고 동수 씨가 가질 취미는 너무나 많지 않은가.